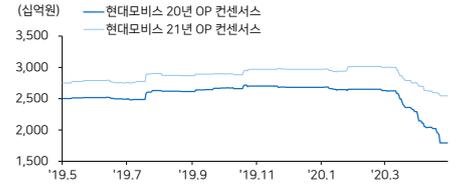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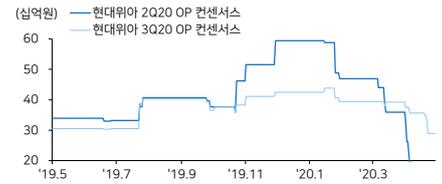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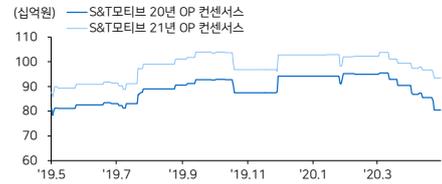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4월 후반매량 유럽 97% · 미국 53% 급감...현대 · 기아차, 내수시장 선전 (전자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인 지난달 유럽 자동차 판매량이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냈. 현대 · 기아차 역시 해외 판매량이 각각 70% · 55% 감소했지만, 내수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며 다른 경쟁사에 비하면 선방. <https://bit.ly/3do1oYs>

서울시, 현대차 GBC 착공 승인...2026년 완공 예정 (서울경제)

현대차가 강남구 삼성동에 짓는 신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착공을 위한 마지막 인허가 절차를 통과. 부지 매입 6년 만. 6월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GBC 착공신고서를 수리하고 착공 신고 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https://bit.ly/3dq3gQ6>

미국 경제재건, 부품 조달망 멕시코 방역조치 탓에 차질 직면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멕시코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음. 코로나19 충격을 받고 미국 제조업체들이 공장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요 부품 조달망 중구간 멕시코가 봉쇄를 풀지 않고 있어 정상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https://bit.ly/3b5zAp6>

테슬라, 중국 현지화 박차...한국 부품업체 영향 (ZD넷코리아)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의 중국산 부품 비중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일 계획. 테슬라의 중국 현지화 전략이 배터리 등 한국 부품 수급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임. <https://bit.ly/3b5zMok>

현대차, '2020 펠리세이드' 출시...5천만원대 최고급 트림 신설 (머니투데이방송)

현대차가 최상위 트림을 신설하고 고객 선호 사양을 확대한 플래그십 SUV '2020 펠리세이드'를 출시. 현대차는 2020 펠리세이드 출시를 통해 국내 대형 SUV 시장을 대표하는 모델로서 펠리세이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예정. <https://bit.ly/3dowqya>

현대모비스, 전기차 그릴커버로 세계 첫 AVAS 개발 (세계일보)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그릴커버를 이용한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AVAS)을 세계 최초로 개발. AVAS는 엔진 소리 등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자동차가 파악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로 엔진 소리 등을 내는 스피커 장치. <https://bit.ly/3dorV6V>

블룸버그 중국 전기차 시장, 테슬라 vs 중국차 주요 경쟁 모델 (뉴스핌)

2018년부터 역성장 중이던 중국 전기차 시장이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 미국-이탈리아 합작 자동차회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1분기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미 최대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도 순이익이 크게 줄었음. <https://bit.ly/2WwQqY5>

글로벌 자동차업계 잇단 실적악화...GM 순익 87% ↓, 적자는 면해 (연합뉴스)

글로벌 자동차업계 잇단 실적악화...GM 순익 87% ↓, 적자는 면해 (연합뉴스) <https://bit.ly/3b7d6UR>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